

# 기업체·대학·연구소 등 첨단기술 지키기 '비상'

## 보안시스템 구축 '집안 단속' 강화

광주·전남 기업체와 연구소가 '집안 단속'을 강화하며 '기술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KT 전남본부는 오는 12월 운용을 목표로 사내 핵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PC 암호화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회사 업무용 PC로 작성한 모든 문서를 부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회사 밖에서 열어볼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광주 북구 대촌동의 광(光) 송·수신모듈 제조업체인 '오이 솔루션'은 모든 신입 사원에게 '보안 서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또 사규에 '퇴직 후 2년 이내에 동종·경쟁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 퇴직 직원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각 연구동 출입문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연구원 개인별로 인증번호가 부여된 '카드 키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기술원은 '통합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해킹을 차단하고, 외부 저장장치(USB·CD 등)에 사내정보를 저장해 밖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내에서 만든 문서는 모두 암호화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열어볼 수 없도록 했다. 일부 기밀 문서의 경우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저작·편집할 수 없고, 열어본 횟수와 시간, 인쇄 횟수가 기록되도록 했다. 인쇄를 할 경우 출력자 계정과 소유권 문제가 함께 인쇄돼 추적할 수 있다.

조선대는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팀인 'Cert team'을 운영, 해킹과 바이러스 등을 감시·차단하고 있다. 본교 학생 6명으로 구성된 'Cert team'은 학내 모든 서버 등 취약점을 찾아내 이를 분석하여 산학협력관 내 '첨단 기술 유출' 방지 역할을 맡고 있다.

광주 테크노파크는 내부에서 각 동·층·사무실·개인별 PC에 고유 정보를 부여해 관리하고 있다. 사무실마다 경우 PC를 통한 정보 공유가 불

가능하며, 외·내부에서 전·수송된 때 일도 감시한다. 보안시스템은 직원들이 PC 작업 중 파일전송·침입탐지·불법프로그램실행 등 이상행동을 할 경우 이를 파악해 전산자료로 남긴다.

한편 지난 2004년 7월 광주의 광산업 벤처 회사 대표였던 전남대 이모(47) 교수는 FITTH(Fiber To The Home·가정 내 광가입자망)을 구축하는 광통신 부품 제조 기술(1조5천억원 주정) 등을 빼내 호주의 광산업체에 팔려다 불참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정보통신공학과 A동 1층 반도체 '클린 룸'(Clean Room).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이 실험실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 인증번호가 부여된 '카드 키'를 소지한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

## 영광서 젊새우잡이 어선 전복

### 선원 5명 27시간 표류...구조

#### 선장은 숨진 채 발견

영광 칠산바다에서 젊새우를 잡던 어선이 전복, 선장이 숨졌다. 나머지 선원 5명은 스티로폼 부표(浮標)에 매달려 표류하다 27시간 만에 구조됐다.

지난 28일 오전 10시30분께 영광군



나흘만 안마도 북서쪽 17km 해상에서 목포선적 9.7t급 연안자랑·제3경진호(선장·윤모·50)가 뒤집혔다. 사고 직후 박모(56·목포시 용당동)씨 등 선원 5명은 바다로 뛰어내린 후 부표(길이 1.2m) 7개를 곤으로 끌어 뗏목을 만들어 몸을 의지했다. 신고를 받은 목포해경은 경비정 3척·헬기 1대·특공대원을 사고해역에

투입, 수색작업을 벌여 조타실에서 선장 윤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사고선박은 지난 26일 신안군 임자면 전포포항을 출항, 칠산바다에서 조업 중이었다.

구조된 선원들은 "다른 곳으로 작업 장소를 옮기기 위해 그물을 걷고 닦(무게 1.5t)을 올리면 중 무게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면서 전복됐다"고 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의 파도가 1m 내외로 잔잔하고 다행히 수온이 높아 오랜 표류에도 불구, 선원들이 자체 온증 등으로 목숨을 잃지 않았다"고 밝혔다.

/목포=이상호기자 lsh@

[www.joy-travel.net](http://www.joy-travel.net)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5가 57번지 2F  
대표전화 (062) 234-3222

기억에 오래도록 간직될 가슴 설레이는 여행...  
매년 1만명 이상의 고객들께서 조이트래블을 통해 여행을 다녀오십니다.  
해외여행 보증보험 5억원 가입업체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주)조이트래블

광주에서 출발하는

장사(장가계) 전세기 직항

코드	상품명	여행기간	적용기간	출발일	상품가
KCZP-1	[장사/장가계] - 보봉호 유람선, 천자산 케이블카	3박4일	6/16~7/13	수	549,000
KCZP-2	[장사/장가계/황석체] - 황석체 왕복 케이블카, 황룡동	4박5일	6/16~7/13	토	599,000
KCZP-3	[장사/장가계/천문산] - 천문산 왕복 케이블카, 황룡동	4박5일	6/16~7/13	토	629,000
KCZP-4	[장사 GOLF] (54H) - 청죽호 C.C, 지산C.C, 용호C.C	3박4일	6/16~7/13	수	699,000
KCZP-5	[장사 GOLF] (72H) - 청죽호 C.C, 지산C.C, 용호C.C, 청죽호 C.C	4박5일	6/16~7/13	토	799,000

\* 공동포함사항 : 공항세, 출국세, 전쟁보험료, 현지공항세, 유류세, 1억원 여행자보험

\* 블포함사항 (관광) : 단체비자비(18,000), 기사 가이드 봉사료 (1박당 10,000원)

\* 블포함사항 (풀프) : 단체비자비(18,000), 기사 가이드 봉사료 (1박당 10,000원), 클럽하우스 종식, 캐디팁, 클럽 렌탈비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성수기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 5일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체 가입업체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자역

◆ 경비 암률 (단, 개인적인 편,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출발인원 15명 이상

## 과속→기어 파손→브레이크 과열→추락

### 지리산 버스 추락

#### 1차 수사 결과 발표

지난 25일 지리산 횡단도로에서 발생한 '체험학습' 관광버스 추락 사고는 과속운전에 따른 변속기어 제어기능 저하와 브레이크 과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례 경찰은 29일 희생자 합동 분향소 마련된 순천의료원에서 지리산 버스 추락 사고에 대한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희성 구례 경찰서장은 "사고 차량은 '수도암' 입구 (성암재 5.4km·천은사 3.6km 지점) 680여m 앞에서 앞 버스를 추월하면서 천은사 방향의 내리막길을 과속으로 달리던 중 변속기어의 제어 기능 저하로 브레이크 과열과 과열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엔진 브레이크(저속 기어 1~2단) 등이 작동되지 않았고, 가속도가 블으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40m 언덕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차량 정밀

분석 결과, 사고 차량의 변속기어 일

부 부품이 떨어져 나간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 부품이 원래부터 떨어져 나간 것인지, 추락 때 충격으로 떨어져 나갔는지 여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문제의 부품은 수년 전

에도 고장을 일으켜 수리를 받은 것

으로 알려져 차량 정비 불량에 따른

사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차량 주행 속도를 알기 위해 '운행 기록지' 분석을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의뢰했으나, 사고 버스가 1일용 기록지를 3~4일 이상 사용하는 바탕에 정확한 속도 추정을 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순천 S관광의 관광버스 중 2대가 지입차인 점을 확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실제 관리자 및 지침차주 등 4명을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전 치 6주의 증상을 입은 버스운전자 김모(41)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운전자의 약물 복용이나 음주, 운행 중 휴대전화 통화 등은 사실무근"이라며 "교통안전시설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간 수사발표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그러나 ▲17년 운전 경력 소유자가 경기사로에서 엔진브레이크를 작동하지 못한 이유 ▲사고 지점 반대편이 우수로(雨水路)와 벽면인데, 왜 낭떠러지로 떨어졌는지 의문점이 많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순천 매산중 1학년 9반 학생과 교사 등 35명은 지난 25일 노고단 산행을 마친 후 학교로 돌아가던 중 버스 추락으로 5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순천=이종행·김진수 기자  
golee@kwangju.co.kr

내원침 김충득

기자실에 끊치고 앉아  
담담하는 기자들!  
방법 좀 연구해 보도록...

워로니! 어떻게 만들었어???

(책상에) 끊치고 앉아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순천 S관광의 관광버스 중 2대가 지입차인 점을 확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실제 관리자 및 지침차주 등 4명을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전 치 6주의 증상을 입은 버스운전자 김모(41)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지난 10년 간 노루·고라니 등 야생동물 100여 마리를 포획, 박씨가 운영하는 건강원을 통해 식용으로 가공한 뒤 시중에 유통했다"고 밝혔다.

## 사제 권총·엽총 제작 야생동물 밀렵

### 경찰, 2명 적발

업종 1정과 실탄 200여 발을 몰래 구입, 밀렵에 나서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지난 10년 간 노루·고라니 등 야생동물 100여 마리를 포획, 박씨가 운영하는 건강원을 통해 식용으로 가공한 뒤 시중에 유통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성적 비관 여고생 자살

29일 오전 7시15분께 광주 C교고 2년 H(17)양이 자신의 집인 광산구 B 아파트 11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H양이 올해 초 대학 특기자 진학을 위해 스포츠 댄스를 시작하면서 힘들어하고, 학교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비판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따라 투신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가수 싸이 '병역비리' 연루 수사

성나팔

○...병역특례 비  
리 의혹을 수사 중  
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9일 인기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사진)가 특례자로 부실 근무한 정황을 잡고 해당업체인 F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검찰은 최근 F사 대표와 소속 사 매니저를 소환, 싸이가 특례자로 근무하게 된 경위와 본부 실태 등을 집중 조사했는데, 조만간 싸이도 소환해 복무기간 중 대학공연 등 다른 업무에 종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

○... 싸이는 정보처리기기사 자격을 취득한 뒤 2003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F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다고.

/연합뉴스

人生不到張家界  
百歲豈能稱老翁?  
"사람이 태어나서 장가계에 가보지 않았다면,  
100세가 되어도 아직 늙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중국 남방항공(CZ) 아옹  
6월 16일~11월 28일까지  
광주-장사 매주 2회(수, 토), 총 47회 운항!!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